

삼화전기

Bloomberg Code (009470)

Reuters Code (009470.KS)



주가 (5월 8일)

63,000원

시가총액

416.7십억원

Analyst

이병화 연구위원

02-3772-1569

✉ bh.lee@shinhan.com

백지우 연구원

02-3772-2671

✉ jiwoo100@shinhan.com

삼화전기 NDR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기업현황]

- 국내 사업장: 현재 충북 청주 대지 10,000평 규모에서 S-Cap, 하이브리드 Cap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과 기존 전해 콘테서 물량 소화, 충북 충주에 10,000평 규모의 유희 대지와 생산 설비를 보유하여 향후 증설 필요 시 즉각 대응 가능
- 해외 사업장 현황: 제조법인은 한국과 중국에 2개 운영, 판매법인 5개, 판매사무소 15개 운영, 글로벌 주요 지역에 제조법인과 판매법인 확보
- S-Cap 생산능력: 23년 340만개 → 24년 450만개 → 25년 물량 증가 및 고객사 확보 시 추가 투자 계획 수립, 추가 증설 시 충주 설비 활용
- 하이브리드-Cap: 23년 300만개 → 24년 1,000만개 → 25년 2,000만개

[실적 가이드스]

- 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2,025억원 → 24년 2,442억원 → 25년 2,906억원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은 23년 11.0%에서 26년 31.5% 수준까지 증가
- S-Cap: 23년 매출 60억 수준에서 24년 208억원 26년 매출 425억원 매출 목표, 보수적인 수치로 자체 판단,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으로 고객사 다변화, 주요 고객과 용량 2배의 제품 테스트 단계
- 하이브리드-Cap: 23년 매출 26억원, 24년 80억원, 25년 205억원 전망, 25년부터 북미 주요 고객사와 600억원 5년 공급 확정, 프리미엄 라인 중심으로 전장 시장 확대 및 35~80V를 사용하는 전장 부품 확대의 수혜, 일본 제품과 대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내 빠른 침투 가능 및 매출 고성장 전망

주요 Q&A

Q. 수익성 개선의 이유가 무엇인지?

A. 과거 저가 제품군의 경우 중국산과 경쟁, TV 및 가전은 국내 주요 고객사향 프리미엄급으로 대응, 주원재료 알루미늄 호일 가격이 30% 하락, 고부가가치 제품인 S-Cap 매출 비중 증가로 수익성 개선 가능

Q. S-Cap 기술 개발이 가능했던 배경은?

A. 국내 주요 고객사의 제안으로 고객사와 2019년도 제품 공동 개발, 기존 일본산 제품 대비 기술 우위 및 낮은 불량률로 신뢰 확보 및 장기 계약. 현재 주요 고객사와 용량 2배 짜리 제품 개발 및 테스트 진행 중

Q. 주요 고객사들의 벤더 이원화 가능성은? 공급 구조는 직납 형태인지?

A. 이원화 원칙이 있는 고객사의 경우도 경쟁 업체가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 직납 구조이나 외부 패키징 벤더가 있는 경우 외부 업체로 공급하나 2차벤더 개념은 아님. S-Cap 양산이 21년, 하이브리드-Cap은 19년이나 자체적인 기술 개발은 2016년부터 시작, S-Cap은 주요 고객사와 공동 개발 레퍼런스 등 국내외 경쟁사 대비 높은 시장 지위 구축

Q. 하이브리드-Cap 점유율 확대 전략은?

A. 북미 고객사와 국내 주요 전장 업체와 공급 계획 조율 중, 국내 경쟁사는 현재 일본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 국내 제품으로 대체 수요 확보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병화, 백지우)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에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